

데스크칼럼

정현아

경제부장



고민이다. 노동절, 어린이날에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까지 이어지는 끝맛 같은 5월 황금연휴를 어떻게 보낼지 말이다. 중동전쟁 때문에 비싸고 시간도 촉박해서 일단 해외는 제외. 전라도로 눈을 돌리지만 그 또한 마땅치가 않다. 가까운 곳은 수차례 다녀왔고, 조금 멀리 가보자니 1박 2일이 불가피한데 코앞에 집을 두고 바깥 잠이 싯토 내키지 않는다. 결국 대전을 유력한 후보지로 생각한다. 두 시간 남짓의 이동시간도 장점이지만 무엇보다 재미와 가성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때 광주와 더불어 재미없기로 유명한 '노점 도시' 대전이 달라졌다. '국민빵집' 성심당이 전국 각지의 '빵지순례자'들을 끌어모으고, 앞다퉈 진출한 유통 대기업들은 쇼핑과 엔터테인먼트, 관광을 동시에 즐기려는 '몰케이션(Mall-cation)' 여행객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우리 가정의 요구에도 딱 부합하는 곳이다.

최근 전경으로 가득한 해외 뉴스 속에서 신박한 중국 소식 하나를 접했다. 한 유통업체가 중국 후난성 창사시에 '링스왕귀'라는 판매시설을 열었다. 우리 말로 '간식왕국'. 매장 면적이 1만2000㎡. 농구장 약 30개 규모로 상상

유통 왕국, 간식 천국

을 초월한다. 업체는 전 세계 6500개 이상의 브랜드와 3만5000종 이상의 간식을 여기에 모았다. 특히 '간식 북도', '컵라면 도시', '음료 마을' 등 10여개 테마 공간을 구성해 쇼핑과 체험, 활용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개장과 함께 이른바 '인증상 명소'로 입소문을 타며 대규모 방문객이 몰렸다. 그러다 사흘만에 임시 휴장에 들어갔다. 방문객이 너무 몰려드는 바람에 손님맞이와 계산 등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며칠 동안 문을 닫고 정비를 해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인산인해를 이룬 모습이 '중국스럽다'고 느낀 것도 잠시,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넘쳐 문을 닫을 정도로 재미있는 아이디어와 시설, 구성이 부러울 따름이었다.

광주도 '노점, 노쇼핑 도시' 탈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준비해왔다. 특히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확충하는 준비작업에 힘을 쏟아왔고, 본계도에 들어서는 단계다.

유통시설 확충 계획을 보면 북구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서는 '더현대 광주'가 착공에 들어갔다. 서구 광천동에서는 광주신세계가 3조원 규모 터미널복합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산구 어등산 일대에서는 스타필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광주의 유통시설 확충은 단순히 유통과 소비구조의 변화만을 꾀하지도, 의미하지도 않는다. 도시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데 무게를 둔 사업이다. 성패에 따라 도시의 명운과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만큼 우려도 많다.

당장 이들 사업을 추진해온 시장이 곧 비결 예정이고, 광주·전남 통합이라는 큰 변수가 생겼다. 7월에 취임하는 통합시장이 대형 유통시설 건설사업을 핵심사업으로 끌

어안고 강력하게 추진할지 의문이다. 유통인프라 구축 말고도 통합시가 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많을 게다. 자칫 전 경관의 사업이라며 '서자' 취급을 할 경우 한껏 끌어올렸던 동력을 유지,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광주의 경제 지형을 바꿀 프로젝트들이 흔들림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영향평가와 지구단위계획, 건축 인허가,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등 후속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유통기업을 유치하고, 사업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고, 특색있고, 차별화할 것인지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중국의 '간식천국'처럼 말이다. 물론 사업 아이템이 사업주가 결정할 일이지만 1차 소비 주체인 지역민들의 의견과 제안, 자치단체의 지원이 있다면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광주는 이미 지난 2015년 한차례 실패를 경험했다.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가 대형 유통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느냐며 머리띠를 두른 일부 반대의 목소리에 광주신세계 백화점 복합개발이 무산됐다. 이후 신세계는 대전에 백화점을 개장했고, 4년여 만에 1호 매출로 성장시켰다. 광주와 전주 등 중남부권 소비자를 끌어들이려 했다.

'흐르고 통한다'는 유통시설 확충과 함께 시민의식도 이번 기회에 한 단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청년이 떠나지 않을 도시를 넘어 다른 동네 젊은이가 일자리를 찾아, 쇼핑과 재미를 위해 '찾아오는 광주'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여기면서 힘을 합치고 마음을 모으려면 정말 좋겠다.

기고

정성욱

목포농협 융해지점장



우리 농업의 역사는 곧 협동의 역사였다. 옛 선조들이 이어온 계와 두레, 품앗이의 기억은 공동체를 지탱하는 삶의 양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그 단단한 전통 위에서 오늘의 농협이 태어났다.

농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이 1961년 통합되며 출범한 농협은 단순한 조직의 탄생을 넘어선 의미를 지녔다. 생산과 유통, 금융을 하나로 묶는 이 체계는 농민들에게 흩어져 있던 생존의 수단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기반이 됐고, 농촌을 지탱하는 버팀목으로 자리 잡았다. 그렇게 시작된 발걸음은 어느덧 65년의 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 시간의 흐름 속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 2000년 이뤄진 농협·축협·임협합의 통합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었다.

서로 다른 이해와 영역을 넘어 '농업은 하나'라는 인식 아래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농민을 지켜내기 위한 절박한 응징이자 결단이었다. 이 통합은 농협이 개별 조직의 연합을 넘어 농업 전체를 대표하는 공동체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

이처럼 농협의 역사는 끊임없는 통합과 적응의 과정이 엮였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나의 원칙이 자리해왔다. 농협은 농민이 만든 조직이며, 농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소규모 생산자들이 힘을 모아 시장에서 협상력을 확보하고, 공동 구매와 공동 판매를 통해 삶의 기반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협동조합으로서 농협의 본질이었다.

특히 상호금융은 그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역이었

농협의 다음 65년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다. 신용이 부족해 금융의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농민들이 서로를 믿고 자금을 나눴고, 그 성과는 다시 공동체로 환원됐다. 여기에 오랜 상호부조의 전통이 더해지면서 농촌은 단순한 경제 공동체를 넘어 삶을 함께 지탱하는 울타리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은 농협을 성장시키는 동시에 낯선 모습으로 변화시키기도 했다. 2012년 단행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농협의 균형을 흔드는 계기가 됐다. 자본과 수익은 금융 부문으로 집중됐고, 경제사업은 점차 경쟁력을 잃어갔다. 과거 금융 수익으로 유통 부문의 손실을 보전하던 구조가 끊어지면서, 농산물을 제값에 판매해야 할 기능마저 버거운 짐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사이 쿠팡,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은 데이터와 물류를 결합해 유통의 판을 근본적으로 바꿨고, 소비자들은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농협의 유통 구조는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다. 하나마마트와 유통센터의 입지는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단순한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구조적 한계의 결과이기도 하다. 농협은 오랫동안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성장해왔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시장을 개척하고 경쟁하는 힘을 충분히 키우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지금까지 농협은 중앙이 방향을 정하고 지역이 따르는 체계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초단위로 변화하는 시장의 속도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 오히려 각 지역이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율성이야말로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다. 지역농협이 하나의 독립된 경제 주체로서 유통 전략과 브랜드, 판로를 설

계하고, 시장에서 직접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자리 잡는다면 중앙의 역할 또한 자연스럽게 달라질 것이다. 모든 것을 지휘하는 조직에서 탈피해, 기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국 단위의 물류망과 데이터, 금융 인프라는 중앙이 구축하되, 그 위에서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 중앙은 방향을 강제하는 곳이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주는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

이 흐름은 브랜드와 유통 방식의 변화로도 이어진다. 하나의 이름 아래 모든 것을 묶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가진 고유한 가치와 이야기를 담은 브랜드가 스스로 경쟁하며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분산이 아니라 다양성을 통한 경쟁력의 확보다.

금융 역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상호금융의 힘은 지역 공동체 안에서 순환하는 신뢰에서 비롯된다. 지역에서 만들어진 금융의 성과가 다시 그 지역의 농업과 농민, 지역민에게 돌아갈 때 협동조합의 의미는 비로소 완성된다.

물론 이 길은 결코 쉽지 않다. 오랜 시간 형성된 관성과 이해관계를 바꾸는 일은 언제나 고통을 수반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농협을 포기할 수 없다. 농협은 여전히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업인에게 남아 있는 가장 큰 기반이자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농협은 흙에서 시작된 조직이다. 그리고 그 흙은 각기 다른 지역과 삶의 자리 위에 존재한다.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자가 스스로의 길을 찾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난 시간을 넘어 앞으로의 시간을 준비하는 길이다. 생존을 위해 태어났던 농협이 이제는 미래를 위해 다시 태어나야 할 순간이다.

사설

광주경제단체, 지역 기업 경영난 해소 앞장

광주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미국-이란간 전쟁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다.

특히 가전업체의 경우 대우위니아 사태 등 영커기업의 경영난으로 촉발된 2, 3차 협력업체들의 공장 가동중단과 구인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역 경제단체들이 이런 고용시장의 '숨통 틱우기'에 나섰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융·복합 가전산업 고용 안정 활성화 지원사업'의 참여 기업·구직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는 생산 차질과 채용 절벽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긴급 지원책으로 공공 고용망 연계부터 채용, 현장 적응, 장기 근속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광주시 소재 융·복합 가전산업 및 전후방 연관 기업과 만 15~59세 구직자가 대상이다.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되는 데 핵심은 신규 채용 부담을 낮추는 자금 지원에 있다.

먼저 '든든 버팀 안착 지원'은 신규 입사자 1인당 최대 400만원을 투입해 기업과 구직자 양측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즉, 이종 300만원은 기업에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인건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에게 근속 축하금 형태로 지급된다.

또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핵심 기술 단절을 막기 위한 '현장 이음 상생 지원'도 가동된다.

사내 직무 교육을 전담하는 숙련 재직자와 신규 입사자를 1대 1로 매칭하는 멘토링 시스템으로 신규 입사자가 6개월 근속을 달성하면, 직무 지도를 맡은 재직자에게 60만원의 고용 안착 성공 인센티브를 일시 지급하는 것이다.

이어 채용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이탈을 막기 위해 구직자에게는 면접비, 기업에는 소용 간담회 비용을 지급하는 '동행 마중 연계 지원'도 병행된다.

광주상공회의소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인 광산구를 중심으로 가전산업 숙련 인력의 역외 유출을 막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고용이음 장기근속 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대 20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이들 사업이 지역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광주 광산구, 이주민 지원정책 눈에 띈다

광주 광산구의 이주민 지원정책이 눈에 띈다.

광주에서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은 자치구로 이들의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어서다.

광산구는 2024년 11월 1일 기준, 광주 전체 외국인 주민(4만7728명)의 55.6%인 2만6581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수는 매년 증가세다. 우선 지난 2023년 초반 최초로 설치한 외국인 전담부서인 '외국인주민과'를 지난해 '이주민 정책과'로 변경했다.

이는 이들을 '외국인 주민'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재인식하고, 이들의 권익을 정책·행정 전반에 걸쳐 포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조치였다.

실제 광산구는 지난해 이들에게 유용한 제도, 필수 정보 등을 담은 생활정보 길라잡이 책자를 세계 10개 국어로 제작·배포했다.

또 제도적 지원이 없어 생계, 의료 등 어려움을 겪게 된 이주민 57명에게 긴급지원했다. 고충을 겪는 이주노동자를 위해 평일 저녁과 주말에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이주노동자 노동·인권상담소'도 열고 있다.

특히 지역 거주 이주민을 관내 21개 행정동에 이은 22번째 '명예동'으로 지정, '이주민과의 대화'를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이들이 지역에 뿌리내리며 축적한 문화 다양성을 활용한 관광축제를 열어 경제 활성화도 꾀하고 있다.

월곡동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지난 2024년 처음 개장한 '광산세계야시장'은 2년 만에 '치구촌 축제'가 됐다.

첫해 3만여 명의 방문객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4만5000여 명이 찾는 지역 대표 축제 콘텐츠가 된 것이다.

월곡동 고려인마을도 '고려인 역사마을 1번지'로 조성해 주민관광청 운영 등 차별화된 콘텐츠와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역사·문화 탐방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주민 문화다양성 캠페인 등 지역사회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원주민과 이주민이 화합과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한마디로 외국인 주민이 이방인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 수 있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다.

취재수첩

노동절에 소외되는 노동자들

김은지

산업부 기자



달력의 5월 1일은 선명한 검정색이다. 하지만 법은 이날을 '근로자의 날'이라 명명하며 유급휴일로 지정했다. 노동의 가치를 기리고, 일 년 중 하루만큼은 일손을 놓는 채 각자의 삶을 돌보라는 취지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마주하는 노동절의 풍경은 그리 평등하지 않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휴식의 권리

팔하지 못하는 현행법은 결과적으로 누군가의 희생 위에 다른 누군가의 휴식이 성립되는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노동절은 특정 집단만의 기념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이를 위한 날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의 노동절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노동을 얼마나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는지를 비추는 거울이 됐다. 이제는 질문의 방향을 바꿔야 할 때다. 노동의 형태가 어떠하든, 최소한의 휴식권만큼은 보편적인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는 토양을 고민해야 한다. 도전이 무모함이 되지 않는 환경이 중요하듯, 노동이 소외의 근거가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지역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함께 실 수 있는 권리, 그 당연한 상식이 모두에게 닿을 때 비로소 우리는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팔하지 못하는 현행법은 결과적으로 누군가의 희생 위에 다른 누군가의 휴식이 성립되는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노동절은 특정 집단만의 기념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이를 위한 날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의 노동절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노동을 얼마나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는지를 비추는 거울이 됐다. 이제는 질문의 방향을 바꿔야 할 때다. 노동의 형태가 어떠하든, 최소한의 휴식권만큼은 보편적인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는 토양을 고민해야 한다. 도전이 무모함이 되지 않는 환경이 중요하듯, 노동이 소외의 근거가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지역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함께 실 수 있는 권리, 그 당연한 상식이 모두에게 닿을 때 비로소 우리는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Gwangnam Ilbo, including phone numbers and addresses for various departments.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